

21세기는 너무 늦다 - 경제 재도약의 길



白永勳 한국 防産學會 회장,
KID 원장, 경제학박사

이 글은 누적되어가는 국제수지 적자속에서 우리경제와 방위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21세기는 너무 늦다 - 경제재도약의 길」이라는 주제로, 同 제목 책자의 저자를 모시고 방위산업학회에서 개최한 조찬강연회 연설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다

白 박사는 특히 21세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일뿐 결코 저절로 우리의 것이 될수 없다고 강조하며, 新韓國 창조를 위해 우리 경제와 방위산업이 가야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 편집자 주 -

이 글 을 쓰게된 동기는 2사람의 미국 학자에 의해서 저술된 책 때문입니다. 하나는 죠오지 프리드만이 쓴 책으로, 일본과의 3차대전이 시작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또 하나는 MIT 대학의 씨로우가 쓴 책입니다.

이 책들에는 한국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씨로우가 쓴 책의 내용은 『미국이 세계를 지키기위해 16조불을 소비했는데 눈앞에 나타난 현실은 보잘것 없는 것이었다.

그러는 동안 미국은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버렸다. 따라서 이젠 머리싸움을 통해 경제를 회복해보자』하는 것으로서 클린턴 대통령이 많이 선전한 책입니다.

또하나는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한국은 일본에 귀속되거나 중국에 귀속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제는 육상경기와 같다. 한국은 단거리에서 승리했으나, 장거리에서는 패배했다.

아시아의 3마리 龍중에서 한국은 낙오차가 될것이다. 앞으로 100년이 지나더라도 한국은 20위안에 들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는 공무원의 의식 구조가 문제가 되며, 대기업이 단거리에서는 1등을 했지만 장거리 체질이 아니어서 적응 능력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과연 세계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대해 우리에게 불리할 것인지 유리할 것인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경제 내부의 사정을 살펴봐도 격변의 시대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실명제 자체만 하더라도 정부에서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여 안정이 된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라고 봅니다.

금융실명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결과를 아직 속단할수 없습니다. 문제는 과연 10월 12일 이후의 연말 경기가 어떻게 될것인가에서 4가지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다.

첫째, 자금이 생산적으로 흐를지 비생산적으로 흐를지의 문제로 만약 비생산적으로 간다면 인플레이 현상이 옵니다.



경제의 충격법은 국민의 심리적 요인을 자극하기 때문에 총 3년이 걸립니다. 부가가치세는 아직도 적응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둘째,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 습성, 즉 동대문, 남대문 시장에 있는 자연 상인들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활모습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또한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지 상당히 큰 문제가 될것입니다.

셋째, 중소기업의 문제입니다. 기업의 비자금 문제인데, 동양사람은 항상 물건을 감추려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양사람의 양성적인 습성과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서양은 자본주의가 빨리 정착 할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중소기업들이 비자금등의 이런 여건들이 없을때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다음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는것이 세금입니다. 실명제라는 커다란 국가적 충격요법이 우리에게 어떻게 정착할것인가 하는 것은 아무도 예측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조치를 꼭 성공 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산업채권을 만들어 현재 사채와 같은 자금의 길을 터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과거를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

명제 정착은 이러한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본주의는 정도의 문제이지 부정이 있기 마련으로 그것을 한번에 송두리째 뿌리 뽑으려 하면 무리가 따르게 됩니다.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은 21세기가 과연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21세기를 우리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착각입니다. 21세기는 우리의 기회일뿐 반드시 우리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실증적인 자료가 지금 우리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한나라를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정치적 위기, 또는 국가적 위기에 부딪혔을때 중요한 것으로 국민의 확고 부동한 의지가 필요한데 현재 정부는 허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21세기까지 정부가 하고자하는 사업을 살펴보면 1~2시간 단축하려고 경부고속전철에 20조가 넘는 막대한 돈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또 이동통신 프로젝트 15조, 영종도 국제공항 건설 15조, 유선통신,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의 공단조성 등의 비용을 모두 합치면 80~90조에 이릅니다. 정부가 어떻게 10년내 80조를 투자할수 있겠습니까.

현재 통치자의 5년 임기로는 불가능한 일이



며, 따라서 대통령의 임기만료 이후에도 계속 될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런 대책이 없이 일방적으로 실행하면, 요즘 평화의 댐 등 과거 오류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 되고 있듯이 문제점을 안게 됩니다. 역사는 진실이고 진실의 역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렇게 미루어 볼때 우리나라 경제 현실을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채가 480억불이고, 국제수지는 1년에 100억불 적자, 2~4년 지나면 700억~800억불이 됩니다. 이것에 기업체가 가지고 있는 부채까지 더한다면 나라는 파산입니다.

저는 최근에 일본의 통산성 산업정책 국장과 대담하는 과정에서 충격을 느꼈습니다. 한 국가와의 국제 수지에서 60~70억불의 적자를 내는 나라가 세계에 있느냐 하는 이야기로서 이는 문제점이 한일경제협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간접자본의 경우 수출 680억불에 물동량은 1억3천만톤입니다. 앞으로 1,000억불을 수출하게되면 물동량은 2억톤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나 2억톤을 수용할 장소가 없습니다. 이는 과거 5~6년간 전혀 투자를 하지 않아 나타나는 현상으로, 우선순위를 과연 어디에 두어야 할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쟁요지 프리드만의 책을 보면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공산주의가 아직 망하지 않았다. 앞으로 역사의 회귀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다시말해 旧소련은 공산주의가 망한것이 아니라 관료주의가 망한 것이고, 공산주의가 다시 회귀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아주 실감나게 들립니다.

북한이 현재 핵 폭탄을 만들려하고 있으며, 지난번 로동 1호를 개발, 발사 성공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일본정계가 혼란을 일으켰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민당이 무너지고, 일본 국민이 새로운 적을 맞이하여 감정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일본의 새로운 정치사회 현상입니다.

국제 정치관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북한의 배후에는 중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경제가 발전했을때 북한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여 독일식으로 남한이 북한을 흡수합병하려는 등의 꿈 역시 하나의 착각입니다.

장차 南·北 누가 승자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앞으로 10년후 대외 부채에서 파산되고 실업자가 생기고 했을때 도와줄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날 미소 양극체제에서는 미국에 붙기만 하면 살수 있었고, 또한 소련에 붙기만 하면 살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우리나라 홀로 외롭게 서있는 현 위치에서 기술이 낙후되어있는 이러한 상황에

서 5년~10년내 북한에 패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국의 경우 올해에 1,000억불을 수출했으며, 1997년이 되면 홍콩이 중국에 귀속됩니다. 이때에는 5,000억불의 수출을 달성할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5,000억불이라는 금액은 전세계 수출의 20%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또한 우리가 북한을 도와줄수 있는 것인지 중국이 북한을 도와줄수 있는 것인지 앞으로 10년 동안에 결정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또 한가지 우리의 위치는 지정학적으로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북한이 우리와 대화를 하자는 것은 예전과 비교해 볼때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 북한의 입장은 미국과 함께 세계와 맞서게 되는 위상의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커다란 2개의 힘의 전제 속에서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일본이 또한 세계적인 힘으로 부상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꿈꾸고 있는 것은 국지화하는 전략의 개념을 뛰어넘어, 전세계를 광역화 하자는 것입니다. 중국 역시 세계적인 힘입니다. 조지 프리드만이 결론 맺기를 『역사는 앞으로 일본과 중국이 싸움이 될 것이다. 거기에 희생되는 것은 한국이다. 여기서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것이 프리드만의 결론입니다.

역사의 회귀가 무엇입니까? 역사는 비극의 악순환이며 평화의 눈물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동방예지의국의 전통은 냉혹한 국제 경쟁력 시대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근대사에서 3번째 실패를 하느냐 하는 기로에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첫번째 실패는 李朝의 멸망으로, 이는 관료들의 부패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반 계급이 부패하고 정치는 사당오색으로 갈라졌으며 호남지방에 있는 곡창지대에는 탐관오리들이 백성을 수탈했고 이로 인하여 민중봉기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를 수습하려 청나라에 원병을 청했고 일본 군대가 들어와 강화도 조약을 맺게되고, 1904년 을사보호조약으로 가는 10년간의 흐름은, 우리의 정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민족생존권의 말살이라는 쓰라린 역사였습니다.

두번째 실패는 1945년 독립을 찾았지만 우리는 또 쓰라린 동족상잔의 6·25사변을 겪지 않았습니까. 이 지구상의 역사기록에서 동족끼리 350만명이라는 인명을 살상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렇게 쓰라린 고통의 과거를 안고 지금 또다시 역사 앞에 실패하느냐 하는 기로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헛된꿈과 가상속에서 착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긴 역사의 항로에서 보면 지난 30, 40년간의 역사는 하나의 점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엄청난 성과로 생각하여 21세기는 우리 것으로 생각하는 착각을 버려야겠습니다.

그러나 비극만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 동구라파를 비롯하여 전세계가 한국의 투자유치를 바라고 있으며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투자유치를 위해 그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바로 황금의 기회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손을 잡고 전세계로 향하여 뛰어갈수 있는 기회로써, 구국의 융성기는 맞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 대기업들은 과거의 허상 속에서 착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착각을 버리고 빨리 깨어나야 하겠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결코 명령과 말, 수단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피와 땀이 있어야 하고 성취의 희열은 반드시 자기 희생과 고통이 전제 되어야 합니다. 우리 역사의 회귀가 비극의 악순환이 안되려면 이런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세계가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하고 21세기에 독립국가를 유지할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위상정립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어떻게 접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대

안이 무엇이겠습니까. 고통의 분담을 국민과 정부가 함께 하자고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고통은 정부가 전담하자는 것입니다. 정부가 고통을 전담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안됩니다. 국민에게 분담하지 않아도 국민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은 감각이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민간이 할수 있는 것은 민간에게 주어야 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중소기업에 투자를 해야 하고 방위산업을 육성해야 됩니다.

기술에 투자하고 사회간접시설 개발을 정부가 앞장서서 해야됩니다.

또한 초인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 미국 안보체제에서 벗어나 이제 방위산업 자립경제의 자주국방에 설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최소 한도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요건입니다. 후세를 위해서 이정도의 국방력은 우리가 자력으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방위산업 육성은 3가지 점에서 다시한번 재편성해야 합니다.

첫째는 방위산업만 가지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으로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고도화에서 기술 1등국으로 가는 마지막의 길은 방위산업 육성을 통해 가는길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미국 일본은 지금도 방위산업을 개방하지 않습니다. 무역자유화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 만큼은 절대 개방하지 않습니다.

미국·일본의 무기가 국제시장에 비해 6, 7배 비쌉니다. 그래도 개방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비싼 것으로 하나의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GNP의 1.8% 약 400억불의 돈을 세금에서 거두어 12만명 밖에 되지 않는 병력에 쓰고 나머지는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하여 기술축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NEC, 히다찌, 미쓰비시에는 사복입은 군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부에서 받은 5억~6억불의 자금으로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것이 바탕이 되어 NEC가 오늘날 세계적으로 뛰어난 첨단 반도체를 만들지 않았

습니까?

다시 말하면 일본의 산업구조 고도화에는 방위비가 기본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일본 자본주의의 특징입니다.

우리도 방위산업에 대해서는 적어도 GNP의 4%단계가 아니라 6%는 무슨일이 있어도 확보하여 적어도 3% 정도는 재생산, 기술투자를 위해서 쓰여져야 합니다.

두번째 정부가 해야 할일은 방위산업이 국가 경제 정책의 핵심이 되어져야 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산업구조 고도화 없이 국제경쟁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과거는 군수산업 기술이 민수산업기술을 앞질러 갔는데 이제는 민수산업기술이 군수산업기술을 앞질러 갑니다. 그래서 방위산업을 통해 전 국가적 틀속에서 방위산업 정책이 위상을 정립해야 되겠습니다. 이견 금융지원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포함해서 방위산업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적 감각을 가질수 있도록 방위산업을 국가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현재 소련이 무너지고 중국에 왔다갔다하고, 앞으로 북한이 우리에게 흡수통일될것이니 방위안보는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국민적 환상과 착각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산업체의 사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됩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국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요즘 젊은 학생과 일부 지식층에 물어보면 방위산업을 없애 버려라 수입을 하면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미국의 이론이며 우리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이들이 착각과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바로잡아 주어야 하는데 국민적 사기의 뒷받침이 없는 불가능합니다.

방위산업 관련 연구를 하는 과학자들을 만나보면 사기를 잃어 왓지 힘이 없어보입니다. 그사람들이 외국에서 공부하고 우리나라에 돌아와 일하고자 할때는 국가적 목표가 있어서 왔는데 막상 와보니 알아주는 이 없고, 다시 말해 국가의 존립을 연구하는 중요한 資産들이,

정신의 지표를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가지 기억이 나는 것은 1961년에 상공부장관 특별보좌관으로 독일차관교섭단 일원으로 편성되어 독일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당시 1억 5천만 마르크의 차관을 얻었는데 제3국 은행에 보증을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당시 재무부 장관이 홍콩에 가서 지급보증을 받고자 했으나 불가능했습니다. 이유는 수출이 2,000만불뿐이 안되는 나라에는 지급보증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독일에서 방법을 모색한 결과 채석탄 광부 10,000명을 파견하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당시 노동부에서 교섭하여 광부 10,000명을 보내고 간호사 5,000명을 보내면 그사람들의 월급이 독일의 코메르스 은행에 입금되어 담보가 됨으로써 독일에서는 이를 근거로 지급보증을 해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 신속히 통지하여 고등학교 출신을 모집했는데 40대 1 경쟁으로 찾아왔고 간호사들이 30대 1 경쟁을 해서 선발된 인원을 급조해 장성탄광에서 한달 교육을 시켜 독일에 보내 우리가 1억5천만불 차관을 가져온 것이 바로 30년전의 이야기입니다.

64년에 박대통령이 독일에 갔을때 우리 광부를 찾아가 연설을 하는데 연설하는 도중 대통령이 울음을 터트렸습니다.

나라가 가난해서 지상도 아니고 땅속에서 일하는 여러분들을 보니 가슴이 메인다며 통곡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있는 전 광부들이 『대한민국 만세』하며 외쳐 연설도 못하고 밖에는 수천명의 광부들이 모여 대통령께 『손 잡아주고 가십시오』라며 대한민국만세를 불러 그곳을 빠져나오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고속도로 아우토반을 가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창밖을 바라보며 차속에서 한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고생하는 광부들을 이국땅에 두고 오는 대통령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던 뤼프케 대통령이 울지마십시오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꼭 30년전 우리의 기막힌 사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결론은 첫째 역사의 회귀는 비극의 회귀이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역사는 달콤하지 않습니다. 환상과 향락주의에 빠져있을때가 아닙니다. 21세기는 결코 우리것이 되지 않고 우리의 기회일 뿐입니다.

21세기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려면 과거보다 더한 엄청난 고통과 희생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두번째는 독립국가의 성립 여건이 무엇이나입니다. 독립국가라 하는것은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름이 수출의 21%를 차지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일본과 독일의 경우 방이 200개면 기름을 1년에 이만큼만 쓰라고 지정하고 그 이상 더 쓰면 세금을 엄청나게 부과합니다. 이것을 볼때 독립국가의 요건이 무엇인가를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번째는 방위산업의 경우 일부의 시각에서 정부의 정책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안이한 자세로 방위산업을 육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방위산업 육성이라는 것은 국가가 가져야할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우리의 방위산업에 대한 인식을 다시하고 위상을 재정립해야 되겠습니다.

네번째는 21세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일 뿐 우리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앞에 다가서 있는 수많은 일들이 이것입니다.

시급하게 모방에서 탈피하여 초일류 국가를 향해 국력의 재충전 즉, 과거에 있던 우리의 모든 힘을 용광로에 집어 넣고, 새로 신제품을 뜨거운 용광로에서 다시 뽑아내는 이런 정력과 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언젠가는 후세들이 우리의 존재가치를 인식해주고, 우리라도 있었기 때문에 독립국가를 유지했다는 미래의 평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세대는 어떤일이 있어도 어려운 고비를 넘어 새롭고 알찬 세대에게 희망과 책임감을 주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성취와 기쁨을 후세에게 넘겨줄수 있는 자생력있는 자립 자존의 독립국가 모습을 갖추어 가도록 매진해야 합니다. *